

보도시점

2025.2.27.(목)
회의종료시 (11:00)

배포

2025.2.27.(목) 09:00

‘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 ◆ ‘25년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
- ◆ 금융권 자율의 가계부채·리스크 관리 기조를 확고하게 확립
- ◆ 경기여건·금리·부동산 상황 등을 보아가며 세심하게 대응

‘25.2.27일(목)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 및 주요 은행이 참석하였으며,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5.2.27.(목) 10:0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M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 (안건) ①최근 가계대출 동향, ②’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① 가계부채 관리목표 · 방향

정부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한다. 특정시기 쏠림이나 중단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1)98.7 (‘22)97.3 (‘23)93.6 (‘24)90.5 내외 전망

우선 금융권 대출의 경우,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가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또한 특정 시기로의 쏠림이나 중단없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한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한다.

주택도시기금(HUG)의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자리론(구입자금) 등 정책대출의 경우에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증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지방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②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 · 내실화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전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3단계 스트레스 DSR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4~5월경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총액 1억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간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③ 전세대출 · 보증 관리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신용보증기금(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3社の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하고,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한편, 금리 여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자본규제상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 주요 논의사항 >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금리경쟁 격화 등에 따라 여름철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9월 이후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올해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 목표 수립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하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부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규제 비율에 맞춘 획일화된 대출 관행보다는, 개별 은행이 보유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신기준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와 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출시·운용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면서도, 이를 은행의 자산-부채 운용 리스크 관리에 전략적으로 접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하였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는 경기 둔화 우려, 성장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려하면서 금융회사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요청하였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 금융 공급,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면서, 특히,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별첨: '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 | | | |
|--------------|------------------------|-----|-----|--------------------|
| 담당부서 (총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강영수 (02-2100-2830) |
| | | 담당자 | 서기관 | 임형준 (02-2100-1690) |
| | | | 사무관 | 이은진 (02-2100-1692) |
| | | | 사무관 | 남진호 (02-2100-1696) |
|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 책임자 | 과 장 | 임흥기 (044-215-2750)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은우 (044-215-2752) |
|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책임자 | 과 장 | 이경수 (044-205-3941) |
| | | 담당자 | 사무관 | 조성조 (044-201-3947) |
|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책임자 | 과 장 | 정수호 (044-201-3337) |
| | | 담당자 | 사무관 | 권지현 (044-201-3339) |
| |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 책임자 | 팀 장 | 김정호 (02-750-6834) |
| | | 담당자 | 과 장 | 고은아 (02-750-6619) |
|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 | 책임자 | 국 장 | 김형원 (02-3145-8020) |
| | | 담당자 | 팀 장 | 이윤선 (02-3145-8040) |